대한민국을대표하는세계최고의도시건설추진

남인희 제2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신임 청장

“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미래형 도시로 건설할 터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복합 자족도시, 친환경 도시, 인간 중심 도시, 문화 · 정보도시로건설하여누구나살고싶어하는품격높은세계최고도시가될수 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제2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취임한남인희청장은“ 행정도시는 지금까지 건설되어 온 신도시처럼 단순히 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개념이 아니라, 개방형계획수립, 다양한국제공모, 도시명칭제정을위한온국민의참여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까지의 도시 건설 개념과는차원이다르게추진하고있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는 지난해1월건설청개청이후주로도시계획을수립하는데치중하여그해7월에는행정도시의 마스터플랜인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같은해11월에는주요기능에대한 배치와 토지 이용 계획을 담은 개발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첫 마을 ’ 사업 국제 공모를 통한당선작선정과전국민의참여속에‘ 세종 ’이라는도시이름도태어났다. 현재시행중인실시계획이오는6월까지마무리되면7월중에는착공할계획도가지고있다.

행정도시의 모델이 될 첫 마을은 행정도시예정지역내남서쪽 1.1㎢에 7,000여에대규모로서 행정도시 건설을 선도할 최초의 사업이라는점에서특별한의미를지닌다.

“ 첫 마을은 기존의 개발 방식과 달리 설계를 세계 유수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공모를통해선정했는데자연친화적이면서 미적인 요소가 고려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되도록할것입니다.”

남청장은특히학교와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노인정 등을 한 곳에 배치한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국내 최초로 시범 건설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러한 첫 마을의 건설 방식은앞으로추진할기업도시와혁신도시 등후속사업의모범적인모델이될것이며, 새로운 주거지 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첫입주는2010년에시작된다.

행정도시는 또한 세계 최초로 도시 중앙을녹지등으로보존하는 형태의, 환상형의 도시로건설될예정이다. 남청장은“ 환상형 개발방식은기존의중심부집중개발 방식의문제점인도심 교통체증, 인구집중, 도심주변난개발등의부작용을방지할수있는새로운도시건설의모델이될것 ”이라고 강조했다.

남청장은아울러기존신도시들의미흡한부분으로지적되고 있는‘ 자족성 결여, 도시환경및 삶의질 저하 ’라는 문제점들을예방하기위해‘ 우수대학유치, 대덕 · 오송등인근첨단산업단지와의클러스터 형성, 의료 · 문화 · 복지 등 도시 컨텐츠 ’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정도시는또한계획의초기단계부터환경적으로 보전해야할 지역을먼저 정한 후 개발지역을 확보하는‘ 환경을우선 고려 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만큼 ‘ 인간과 자연이 조화 된 도시로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인 ‘ 중심행정타운 ’은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실시하였는데 시민 친화적이고 개방적인 새로운 모델로 건설할 계획이다. 오는7월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 내년 착공되어 중앙행정기관12부4처2청 등 총 49개 단위행정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완료하게된다.

남청장은행정도시건설사업이국가균형발전정책의선도사업인만큼성공적으로건설될수 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각오다. 남 청장은 끝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도시인 만큼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통해신뢰관계를형성유지하고도시건설의안정적기반을확립해나갈것 ”이라며 국민들의지속적인격려와적극적인협조를 당부했다.CJ

김희경 · 기자 · khk@cerik.re.kr